

#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지급된 **흑색 볼펜**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 및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가)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중략)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중략)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작만(作滿)<sup>1</sup>허신 논들이야. (중략) 돈 있다고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sup>2</sup>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sup>3</sup> 생각지 았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았드라. (중략)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았어 소출(所出)<sup>4</sup>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농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sup>5</sup> 셈이야. (중략)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았는다군 탄허지 았겠다. 넌 너루서 발전혈 길을 열었구, 그제 또 모리지배<sup>6</sup>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sup>7</sup>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田莊)<sup>8</sup>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았달 순 았구…….”

“팔지 았으면 그만 아납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았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sup>9</sup>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sup>10</sup>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날은 걸 한허지 았겠다구 했다. 독시장밭<sup>11</sup>을 내놓는다구 해 보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았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나?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문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다려가렴.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野人)<sup>12</sup>으로나 죄 았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문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1. 작만: '장만'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 2. 변리: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3. 도시: 도무지. 4. 소출: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 5. 후례자식: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6. 모리지배: 모리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7. 활인: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림. 8. 전장: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 9. 임시: 정해진 시간에 이름. 또는 그 무렵. 10. 느르지논: 철원군 철원을 사요리 일대의 기름진 논을 이르는 말. 11. 독시장밭: 철원에 소재한 선비소(늪) 위에 았는 밭 이름. 12. 야인: 시골에 사는 사람.

(나)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 씨이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까짓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1. 제시문(가)의 밑줄 친 아버지의 ‘신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제시문(가)와 (나)를 각각 활용하여 반박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http://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